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프로젝트, 국제 스마트시티 상 수상

<https://www.smartnation.sg/>

<https://cities-today.com/singapore-wins-world-smart-city-award/>

<http://www.smartcityexpo.com/en/awards>

싱가포르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8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2018 스마트시티(Smart City of 2018)로 선정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정책을 결합하여 선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도시에 수여하는 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AI, IoT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원의 제한이나 고령화 같은 국가의 당면 과제와 물리적 한계의 극복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기치 아래 2014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제안된 후,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Smart Nation 프로젝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싱가포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민간 부문과 거래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확인 시스템 'NDI(National Digital Identity)'가 구축되어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 'CODEX(Core Operation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eXchange)'가 운영된다. 또한 전 영역에서 원활하게 활용 가능하고 보안에 있어 안전한 디지털 지불 시스템 'E-Paymen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Moments of Life'도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Smart Urban Mobility'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근 시 핫스팟을 식별하며,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차 셔틀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시 서비스와 보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센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SNSP(Smart Nation Sensor Platform)' 사업도 진행되어, 2018년 말까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험이 완료된다. 일례로 설치된 센서를 통해 물 사용량과 누수를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국민들의 물 절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시의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 해비타트, 세계은행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Smart Nation 프로젝트의 버스 노선 조정 알고리즘, 부모-교사 간 실시간 연결 포털, 상수도관 누수예측 분석기법 등을 예로 들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디지털 정부		
WHAT	WHO	HOW
·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 막힘없고 원활한 (Seamless)	시민	· 시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 정책·설명·기술 간 통합 강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ecure & Reliable) ·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Relevant)	기업	· 신뢰할 수 있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시스템 운영 · 시민과 협업 및 기술 수용 활성화
·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Digitally Enable) · 전문성 있는 (Digitally Confident)	공공, 공무원	· 디지털 데이터플랫폼 구축 ·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제고

Smart Nation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

자료: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2018),

Smart Nation: The Way Forward. p.13.